

【논문】

버클리 의 비물질주의적 입자론

—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대상의 문제 —

오 아 룬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형이상학

【주요어】 버클리, 비물질주의, 관념론, 입자론,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대상

【요약문】 본 논문의 목적은 버클리의 비물질주의가 입자론과 양립 가능하며, 더 나아가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자론을 거부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체계상 일관적임을 보이는 것이다. 몇몇 논자들은 버클리가 초기에 입자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텍스트들이 입자론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 버클리가 비물질주의와 기계론적 원리들을 양립시키고자 했던 텍스트를 살펴봄으로써 인과력이 없는 입자를 비물질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또한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대상인 입자의 존재를 ‘esse est percipi’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 후에, 버클리 체계 내에서 자연 법칙의 본성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대상을 추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입자의 존재를 요청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버클리의 관념론을 따른다면 입자를 힘과 같이 도구주의적으로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예상되는 반론에 대하여 답변할 것이다.

I. 여는 말

서양 근대 초기에 데카르트, 보일, 로크 등은 물질에서 전통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실체적 형상과 목적인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기계론적 원리를 자연 철학의 핵심 원리로 삼고자 했다. 기계론적 원리에 따르면 모든 자연적 현상들은 물체들 사이의 접촉, 충돌과 같은 운동을 비롯한 일차 성질들로 설명될 수 있다. 대부분의 기계론자들은 육안으로 관찰되는 거시적 물리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는 미시 세계에까지 기계론적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감각 가능한 성질들은 그 사물을 이루고 있는 지각되지 않는 입자들의 모양, 크기 및 운동과 배열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입자론을 함께 받아들였다. 고대의 데모크리토스나 에피쿠로스 등의 입자론이 순전히 선험적 사유의 산물이었다면, 근대의 기계론적 입자론은 경험과학이 발전하는 분위기 속에서 관찰과 실험적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자연 철학자들에게 물리 세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¹⁾

1) 본 논문에서 ‘입자론’은 ‘corpuscularianism’의 번역어다. 버클리가 활동하던 시기의 철학자들이 보일의 조어를 받아들여 입자에 관한 이론을 ‘corpuscularianism’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버클리의 형이상학과 입자론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로크와 보일의 입자론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atomism’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근대 초기 자연 철학 연구자들은 ‘corpuscularianism’과 ‘atomism’을 대체로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입자론과 원자론을 엄밀히 구분한다. 김성환은 “원자론은 물질의 무한 분할 가능성(infinite divisibility)을 부정하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입자론은 물질의 무한 분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며 입자론과 원자론을 구분한다. (김성환, 2008, p.76) 논의의 초점을 물질의 무한 분할 가능성과 진공의 존재여부에 맞출 경우에는 이 구별이 의미있을 수 있다. 일례로, 흔히 근대의 기계론 철학을 확립했다고 여겨지는 데카르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부분들에 의존되어 있다고 믿었지만, 공간이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물질은 무한히 많은 입자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의 구분을 따른다면 그는 입자론자이기는 하지만 원자론자는 아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202-4절 참조) 입자론과 원자론을 선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물질관을 강조해서 그를 입자론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Chalmers, 2009, p.98, Dijksterhuis, 1969, p.434) 기계론적 원리를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철학자들 사이에도 물리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또는 원자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차이에 주

본 논문의 목적은 버클리의 관념론이 입자론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버클리가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 실제로 입자론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자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당시의 과학적 성과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버클리는 자신의 저작 곳곳에서 ‘입자의 철학(corpuscular philosophy)’ 또는 ‘입자(corpuscle, particle)’라는 용어들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입자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²⁾ 그렇기 때문에 버클리가 실제로 입자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몇몇 연구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어 왔다.³⁾ 그런데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였는지의 여부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버클리 형이상학의 핵심은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사물들이 우리의 정신에 의존되어 있는 관념(idea)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존재하는 것은 정신에 의해 지각되는 관념, 그리고 그 관념들을 지각하는 정신(mind) 뿐이며, 정신에 의해 지각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물은 없다. 그러므로 버클리

목하지 않고,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기계론적 원리를 미시 세계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담은 이론을 ‘입자론’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 2) 이 말은 버클리의 초기 저작들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밝혀 둔다. 버클리의 대표적인 초기 저작으로는 흔히 『인간 지식의 원리론(Principles of Human Knowledge)』(1710, 이하 『원리론』)와 『하일라스와 필로누스의 세 대화(Three Dialogues between Hylas and Philonous)』(1713, 이하 『세 대화』)가 꼽히는데, 이 저작들에서 버클리는 입자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반면 그의 마지막 저작인 『사이리스(Siris)』(1744)에서는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는 입자가 실재한다는 입장이 비교적 뚜렷한 형태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사이리스』, 250절 참조) 그러나 버클리의 후기 입자론이 초기의 관념론적 형이상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가버가 지적한 바대로, 초기와 후기 저작 사이의 연속성과 변화의 문제를 선결 과제로 떠안을 것이다. (Garber, 1982, p.193, 주석 8) 버클리의 초기와 후기의 철학적 입장 사이의 연속성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만 버클리의 후기 입자론이 버클리의 초기 관념론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의미있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버클리 형이상학의 주요 테제들과 입자론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근거는 버클리 형이상학의 전성기로 평가되는 초기의 저작들에 한정하도록 한다. 버클리의 후기 저작에서 나타나는 입자에 관한 논의는 Tipton(1982), Urmsion(1986), Moked(1988) 참조.
- 3) Warnock(1953, pp.212-13), Garber(1982), Wilson(1985, pp.189-90), Winkler(1989, pp.263-75), Downing(2005, pp.230-35), Moked(1988, pp.6-25).

리의 주요 논적은 물질주의자들이다. 그는 정신에 의존하지 않고서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상정되는 물질(matter) 혹은 물질적 실체(material substance) 개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관념론을 전개시켜 나간다. 그래서 그의 관념론은 비물질주의(immateralism)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감각 관념의 원천이라고 생각되던 물질이 부정된다고 해서 물리적 사물들로 이루어진 물리 세계가 함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⁴⁾ 물리적 사물들은 실제로 관념 혹은 관념의 다발일 뿐이므로 물리 세계는 곧 감각 관념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되지만, 이 감각 관념들은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이해 불가능한 대상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우리가 불이라고 부르는 관념에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움을 느끼고 빵이라고 부르는 관념을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도록 신이 우리의 정신 안에 관념들을 규칙적으로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터전이자 자연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인 물리 세계는 곧 신으로부터 산출된, 규칙적이고 정합적인 관념들의 세계가 된다. 그런데 관념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리 세계가 관념들의 세계일 뿐이라면 이 세계에 대한 일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의 견고한 기반이 무너질까 우려했다. 버클리 자신도 이 우려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⁵⁾

그러므로 버클리는 관념들로 이루어진 물리 세계가 물질 개념을 배제하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 세계 못지않게 튼튼한 세계일 수 있음을, 다시 말해 비물질주의가 우리가 지각하는 물리 세계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물질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도 모든 물리적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버클리 관념론의 주요 과제이다. 그러므로 만일 자연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설득력 있는 과학 이론이 버클리의 형이상학적 체계 내에 정합적으로 받아들여질

4) ‘물질’은 정신에 독립적인 실체를, ‘물리적 사물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대상들을 의미한다. 버클리는 물질을 부정하고 관념론을 받아들여더라도 물리 세계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을 전 저작에 걸쳐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원리론』 34-40, 50, 58-59절 참조.

5) 『원리론』 50, 107절, 『세 대화』 175, 257-58 참조.

수 없다면 이는 관념론적 형이상학의 큰 약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입자론과 버클리 관념론의 양립 문제는 버클리의 형이상학이 설득력 있는 과학 이론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런데 버클리의 관념론과 입자론은 얼핏 보기에 양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첫째, 물질주의자들에 의해 전개된 일반적인 입자론에서 입자의 배열이나 운동 등은 색깔, 소리 맛과 같은 감각적인 성질들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상정되는데,⁶⁾ 버클리의 관념론 체계 내에서는 정신 이외에 어떤 것도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버클리가 입자론에 반대했다고 해석하는 데 기여하는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입자론은 물질주의적 원리들, 특히 정신에 독립적인 물질에 인과적 힘이 있다는 원리와 자주 결합되어 나타난다. 또한 거기서 입자론자들은 입자에 인과적 힘이 있어야만 어떤 설명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만일 입자의 일차 성질들이 관념에 다름 아니라면, 관념에는 인과적 힘이 없기 때문에 입자의 일차 성질들은 어떤 것도 야기하지 못하게 되는데, 애초에 입자가 감각 가능한 현상들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면, 입자론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어떤 것도 야기하지 못하는 입자가 어떤 설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둘째, 입자는 이제까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존재자로 상정되는데, 이는 버클리 형이상학의 핵심 원리인 ‘esse est percipi’ 원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지각되는 것, 그리고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한다면, 지각되지 않는 입자의 존재는 관념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버클리가 지각되지 않는 대상들의 존재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버클리가 다루고 있는 지각되지 않는 대상들은 대체로 이미 한번은 지각되었던 대상들이다. 다시 말해, 버클리의 지각되지 않는 대상의 문제는 잠시 부재중인 대상들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입자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미경을 통해서도 관찰되지 않을 만큼 작아서

6) “볼과 눈에 대한 특정한 관념들, 다시 말해, 색, 맛, 냄새 및 소리를 사라지고 멈추게 하자. 그러면 그것들은 부분들의 크기, 모양, 및 운동으로, 즉, 그것들의 원인으로 환원될 것이다.” 로크, 『인간지성론』, 2권 8장 17절 참조.

한 번도 감각을 통해 경험된 적이 없는 것인데, 도대체 입자의 존재를 관념론 체계 내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대상이라면 버클리도 그토록 부인하고자 했던 지각 불가능한 물질과 같은 위상에 있는 것 아닌가? 정신과 독립적인 물질을 상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직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 나는 위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답하면서 버클리의 관념론과 입자론이 양립 가능함을 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버클리가 실제로 관념론적 입자론 또는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 일관된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몇몇 연구자들로 하여금 초기 버클리가 입자론을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도록 만드는 구절들을 살펴보고 재해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버클리의 형이상학과 양립할 수 없는 입자론은 물질주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특정한 종류의 입자론에 불과하며, 이러한 입자론을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입자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의 논리적 공간은 열려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좀더 적극적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요 텍스트적 증거를 검토한 후에, 입자론이 버클리 형이상학의 핵심 원리와 양립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그 다음 4장에서는 버클리의 형이상학이 입자론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체계상 일관적이라는 점을 보이기 위하여 버클리의 자연 법칙 개념을 조망해보고, 자연 법칙의 본성에 입각하여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존재자를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 논문에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박, 즉, 버클리의 관념론 체계 내에서는 입자에 대하여 힘과 같이 도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반박을 다루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내려보고자 한다.

II. 버클리의 반입자론적 텍스트에 대한 재해석

버클리는 초기 저작들에서 입자론을 명시적으로 옹호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입자론에 대한 그의 실제 견해를 짐작해볼 수 있는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논쟁거리다. 그런데 입자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물질주의자들의 주요 원리들을 공격하는 맥락 속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버클리가 물질주의를 부정하면서 입자론도 함께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몇몇 주석가들은 입자론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초기 버클리가 입자론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반입자론적’ 구절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이 구절들이 버클리가 입자론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또한 관념론과 양립 가능한 입자론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한 초석으로서, 관념론과 양립 불가능한 입자론은 어떤 입자론인지 살펴볼 것이다. 즉, 이번 장에서 이뤄질 작업은 버클리가 초기 저작에서 입자론을 옹호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이기 이전에, 그가 입자론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주석가들의 해석에 반대되는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관념론과 입자론이 양립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

다우닝(Downing)은 버클리의 초기 저작들인 『원리론』과 『세 대화』에서 그가 관념론적 입자론을 옹호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아니’라고 답한다. 특히 『원리론』에서 버클리가 보인 태도는 ‘관념론적 입자론을 직접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원리론』 102절이 제시되고 있다.⁷⁾

우리가 사물들의 본성에 대해 무지하다고 스스로 선언하게 되는 큰 동기 하나는, 모든 사물들이 그 자체 내에 그 성질들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또는 각각의 대상에는 내적인 본질(*inward essence*)이 있으며, 이 내적인 본질은 그것의 식별 가능한 성질들이 흘러나오는 원인이고, 그 성질들이 이 내적인 본질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행의 의견이다. 몇몇 사람들은 현상들을

7) Downing(2006), pp.234-35.

불가사의한 성질들(occult qualities)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상들은 기계론적 원인들, 말하자면, 감각될 수 없는 입자들(insensible particles)의 모양, 운동, 무게와 같은 성질들로 환원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영혼 외에 다른 동작주(agent)나 작용인은 없다. 다른 모든 관념들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완전히 무력하다(inert)는 것이 명백하다. [...] **따라서 색이나 소리의 산출을 모양, 운동, 크기 등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헛된 수고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와 같은 시도들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는 한 관념이나 성질이 다른 것의 원인으로 돌려지는 경우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원리론』 102절, 강조는 필자)

『원리론』 102절에서 버클리, 우리가 사물의 본성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없다고 믿는 회의주의자들을 논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이 사물의 본성에 대한 무지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각 가능한 성질들을 산출하는 원인이 감각 불가능한 ‘사물 그 자체’ 내에 들어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의 예시로, ‘기계론적 원인들’을 입자들의 일차 성질에 귀속시키고 있는 입자론이 등장한다. 그러나 버클리가 그의 초기 저작들 전체에 걸쳐 강조하는 바대로, 정신이 지각하는 관념들의 산출 원인은 정신 뿐이다. 공허한 개념인 물질적 실체도 관념의 원인이 될 수 없고, 그 안에서 어떤 힘도 찾아볼 수 없는 관념 또한 다른 관념의 원인이 될 수 없다.⁸⁾ 그러므로 사물의 본성에 대한 회의주의는 잘못된 전제, 즉, 사물의 감각적 성질을 산출하는 원인은 사물 그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를 가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버클리의 주장이다.

그런데 버클리는 102절에서 관념론적 입자론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가? 여기서 그는 분명히 어떤 종류의 입자론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절의 목적은, 현상들을 산출하는 인과력을 정신에 독립적인 사물 그 자체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물에 내적인 본질이 들어있다고 보는 회의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지, 입자론 일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러한 회의주의적 입장에 들어맞는 입자론만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바르다. 위와 같이 인과적 힘을 가지는

8) 『원리론』 25, 26절, 『세 대화』 216 참조.

입자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텍스트들은 버클리가 입자론 전체를 부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102절에서 버클리가 입자론 전체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우닝은 102절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시도들’에 대한 버클리의 언급에 주목한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되는 ‘그와 같은 시도들’은 ‘색이나 소리의 산출을 모양, 크기, 운동 등으로 설명하려는 노력’과 같은 시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를 입자를 통한 과학적 설명 전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설명’이라는 용어를 맥락을 고려하여 특정한 의미로 한정하지 않고 너무 넓게 해석한 데서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버클리의 논적인 물질주의적 입자론자들은 입자들이 현상의 원인이 됨으로써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한다’고 믿고 있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버클리 자신은 분명 다른 종류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왜 이러저러한 기회원인들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관념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원리론』 50절)

모든 자연 현상의 원인은 오직 신 뿐이므로, 이러한 전제 하에서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은 물리적인 대상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버클리의 비물질주의적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즉, 신 외의 다른 존재에게 자연 현상의 인과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입자의 일차 성질들이 현상을 설명하되, 인과적 설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애서튼(Atherton)이 지적하듯, “물체 그리고 입자는 원인일 수 없다는 버클리의 주장은 기계적 설명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만, 기계적 설명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⁹⁾ 따라서 102절에서 버클리가 ‘그와 같은 시도들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할 때, ‘그와 같은 시도들’을 ‘색이나 소리의 산출을 모양, 크기, 운동 등으로 <인과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읽는다면, 여전히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

9) Atherton(1991), p.55.

버클리가 입자론 전체를 거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¹⁰⁾

이와 마찬가지로, 버클리가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을 공격하는 논변을 펴는 과정에서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을 전제하는 입자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관념론적 입자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¹¹⁾ 물질의 존재가 배제된 비물질주의적 형이상학 하에서 일차 성질은 이차 성질과 마찬가지로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차 성질과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두 종류의 성질들 모두 관념이므로 어느 것이 더 실재적이라거나 근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입자의 일차 성질에 해당하는 관념들이 우리에게 지각되는 관념들과 어떤 규칙적인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론적 틀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 버클리가 물질주의적 입자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입자론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주의적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클리가 물질주의적 입자론을 거부했음을 드러내주는 텍스트 상의 증거들은 그가 입자론 일반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물질주의적 전제들을 관념론적 원리들로 대체한 관념론적 입자론, 혹은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버클리가 초기 저작에서 제시한 입자론은 언제나 물질주의적 원리들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입자론은 물질주의적 입자론 뿐이며 따라서 위 구절들에서 물질주의적 원리들 뿐만 아니라 입자의 존재 또한 함께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모크드(Moked)의 해석에 따르면, 버클리는 『원리론』과 『세 대화』에서 ‘입자 철학’이라는 이름 하에 물질주의의 제반 원리들을 통합시키고

10)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산출(production)’이라는 용어에 주목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관념론 하에서 입자의 일차 성질들은 색이나 소리 등의 ‘산출 원인(productive cause)’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일차 성질들은 해당 물체의 감각적인 성질들의 ‘산출’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버클리의 형이상학에서 감각적인 성질들을 산출하는 주체(productive agency)는 오로지 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자가 감각 가능한 성질들의 산출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도, 관념들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밝히는 진술의 설명항들 중의 하나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11) 대표적으로 『원리론』 10절 참조.

있다. 그 원리들이란 바로, (1)무한 분할 가능성 테제, (2)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 (3)물질의 가정, (4)물리적 존재자들에 인과력 부여, (5)지각되지 않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원리들이다. 버클리가 두 저서에서 공격하는 입자론은 이러한 다섯 테제의 결합물이므로, 입자론이 언급되는 구절들에서 (1)~(4) 테제들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테제, 즉, 입자의 존재까지 거부한다고 보아야 옳다는 것이다. 모크드는 버클리가 초기 저서에서 입자의 존재 여부를 따로 떼어 주제화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자신만의 입자론을 발전시키거나 입자에 이론적인 역할을 부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입자의 존재 테제가 다른 물질주의적 테제들과 일괄적으로 취급(package deal)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초기 버클리는 물질주의적 원리들과 함께 입자론 일반을 거부한 셈이므로 관념론적 입자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¹²⁾

그러나 버클리가 물질주의적 원리들과 입자의 존재 테제를 불가분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 등장하는 입자는 ‘물질주의적 입자’를 일컫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곧, (1)~(4)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5)를 ‘지각되지 않는 <물질주의적> 입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언제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버클리가 거부한 입자론은 입자론 일반이 아니라 물질주의적 입자론이라고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크드가 제시한 근거들은 버클리가 입자론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버클리가 모든 입자론에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주장과도 양립 가능하다.

또한 모크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버클리가 입자의 존재 테제를 다른 물질주의적 원리들과 언제나 아주 강하게 결합시키고 있어서 입자의 존재 테제를 독립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만일 버클리가 입자론을 물질주의적 원리들과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모크드의 논의는 무의미해진다. 그런데 버클리가 입자론을 물질주의적 원리들과는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버클리는 물질을 부정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물질주의자들이

12) Moked(1988), pp.6-25.

제기할 법한 반박을 서술하면서 『원리론』 50절을 시작한다.

물질과 운동에 의해서 설명된 아주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입자 철학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또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매우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온 기계론적 원리들을 전복시키게 된다고 당신들은 말할 것이다. 요컨대 자연의 연구에 있어서 고대 또는 현대 철학자에 의해서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든 간에, 모든 것은 물질적 실체 또는 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 위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개별적인 것들의 귀납에 의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듯이, 그 가정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그 어떤 현상도 없다고 답할 것이다. (『원리론』 50절)

여기서 버클리는 ‘그 가정 없이’, 즉, 물질이 존재한다는 가정 없이도 모든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며 물질 개념의 효용을 부정하지만, 입자론과 기계론적 원리들마저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물질 없이도 입자론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며, 기계론적 원리 또한 원래대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버클리는 물질이 실재한다는 물질주의의 주요 가정과 입자론 또는 기계론적 원리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생각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물리 세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에서 물질주의의 형이상학적 가정들을 제거한다고 해도 그 이론들의 설명력이 곧바로 부정되거나 나아가 그 이론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버클리는 입자의 존재 테제를 물질의 가정 및 여타 물질주의적 원리들과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그로부터 우리는 다시금 그의 반입자론적 태도를 드러내는 듯 보이는 구절들을 물질주의적 원리들과 그러한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자론만을 거부한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

Ⅲ. 물리적 사물의 내부 구조에 대한 버클리의 입장과 ‘esse est percipi’ 원리와의 충돌 문제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물질주의에 대한 부정이 입자의 존재에 대한 부정까지 함축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버클리의 관념론은 분명 외부 물질과 같이 지각하는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버클리의 관념론이 정신이 지각하는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입자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주장, 즉, 버클리가 실제로 입자론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텍스트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관념론적 입자의 존재가 버클리 형이상학의 핵심 원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버클리의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에 관한 최근의 논쟁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텍스트는 『원리론』 60-66절이다. 여기에서 버클리는 그의 관념론적 형이상학과, 물리적 사물들은 복잡한 기계적 내부 구조(internal mechanism)를 이루고 있다는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는 그러한 현상을 관념론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군의 해석가들은 이 구절이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만한 핵심적인 증거라고 보며, 또 다른 이들은 이 구절들은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³⁾ 나는 물리적 사물의 내부 구조에 관한 버클리의 입장이 그의 형이상학 체계 내에 기계론적 입자론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을 받아들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조직과 동물의 여러 기관들, 인공적 사물들의 복잡한 내부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다양한 현상들의 원인이라고 생각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버클리에 따르면, 자연 현상의 유일한 원인은 신 뿐이며 우리가 지각하는 물리적 사물들은 신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관념들에 불

13) Garber(1982), pp.182-84. Wilson(1999), pp.245-48.

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유기체를 포함한 물리적 사물들의 복잡한 내부 구조는 어떤 것도 인과적으로 야기할 수 없으며, 내부 구조와 그러한 구조의 결과라고 일컬어지는 사건 혹은 감각적 성질들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 구조들은 왜 필요한가? 『원리론』 60절에서 버클리는 비물질주의적 인과 원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제기할 법한 질문들을 나열한다. 우리에게 관찰되는 다양한 내부 구조들이 인과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들은 대체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가? 신이 모든 물리적 사물들에 대한 감각 관념을 직접적으로 야기한다면, 시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공이 내부를 수리해야만 다시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가? 신이 자연의 모든 결과를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라면 내부 구조들은 헛되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버클리의 핵심적인 답변은 다음에 드러난다.

신, 또는 사물의 통상적 과정을 유지하고 지배하는 지성은 그가 기적을 산출하기로 마음먹기만 한다면, 아무도 시계의 부품을 만들어서 시계의 문자판 안에 그것들을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계의 모든 운동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목적을 위해 창조시에 확립하고 유지한 기계론적 법칙에 따라 기꺼이 행위하려고 의지한다면, 앞서 말한 운동을 산출하기 전에 시계공이 부품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대로 조립하는 행위들이 앞서야 한다는 점이 필연적이다. (『원리론』 62절)

관념의 결합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표지(mark) 혹은 기호(sign)와 그것에 의해 표시된 것(thing signified)과의 관계를 함축할 뿐이다. [...] 자연 철학자의 임무는 자연의 창조주에 의해서 제정된 이러한 기호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원인을 통해서 사물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리론』 65-66절)

신이 내부 구조 없이 그에 상응하는 외적인 관념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¹⁴⁾ 하지만 신이 지혜롭다면, 모든 감각 관념을 기계적 법칙

14) ‘내부 구조’와 ‘외적인 관념’이라는 용어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오해를 짚고 넘어가자. 버클리의 관념론에 따르면 정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사물들은 모두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실제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감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각되는 모든

에 따라 야기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버클리는 여기서 내부 구조가 비록 인과력이 없더라도 그와 결합된 관념을 예고하는 ‘기호’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혜로운 신이 설립한 자연적 질서 내에서 이러한 내부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입자의 일차 성질 또는 입자적 하부 구조가 어떤 인과적 힘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계론적 법칙에 따르는 신이 산출하는 관념으로서, 또한 그에 상응하는 감각 관념들을 예고하는 표지(mark) 혹은 기호(sign)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자연 철학자들의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버클리의 관념론 체계 내에 인과력을 갖지 않는 관념으로서의 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¹⁵⁾ 그러나 나는 이 구절들만을

현상들은 바로 실재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 사물이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은 지각되는 관념과 존재론적 위상을 달리하는 실재적 본질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외적인 관념’이라는 표현은 실재적인 것과 별개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 사물의 내부 구조의 관념과 대비되는 외적인 관념을 의미한다.

- 15)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물질주의적 입자론과 버클리의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의 근본적인 차이는 원인 개념의 차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기호로서의 원인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 나는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입자의 일차 성질들에 대한 관념이 감각적 성질들을 산출하는 인과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감각적 성질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산출을 예고하는 기호임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버클리의 특징적인 기호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하부 구조가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 산출한 ‘기호’일 수 있는가?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논의를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신이 제정한 기호(sign)와 그것이 표시하는 바(thing signified)의 관계를 통해 버클리가 물리 세계의 질서를 설명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기호 또는 기호가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해야 함을 함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계의 내부를 우연한 기회에 열어보기는 하였으나 시계의 부품들이 이루는 구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시계의 내부를 관찰한 적은 없지만 기계론적 원리에 대한 소상한 관심으로 인해 시계 바늘의 움직임으로부터 시계의 내부 구조를 그럴듯하게 추론해낸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둘 중 어느 사람이 신의 기호 체계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직관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신의 기호 체계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여기서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기호가 기호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기호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버클리의 기호 개념과 잘 조화될 수 있는지는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본 논문에서 미진하게 다뤄진 버클리의 기호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근거로 해서 버클리가 관념론적 입자론을 실제로 염두에 두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버클리가 『원리론』 60-66절에서 자신의 비물질주의를 거시세계에서 관찰되는 기계론적 원리들과 양립시키고자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입자는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존재자이므로, 시계장치와 같이 현실적으로 지각 가능한 내부 구조만 다뤄지고 있는 이 구절들만으로는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을 확립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문제는 한 번도 지각된 적이 없는 입자가 버클리 관념론의 핵심 원리인 ‘esse est percipi’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¹⁶⁾ 지각되지 않는 ‘비물질적 입자’는 모순된 용어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¹⁷⁾ 따라서 사물들의 존재를 지각됨(being perceived)과 동치시키고 있는 ‘esse est percipi’ 원리를 골자로 하는 버클리의 존재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각된 적이 없는 입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물리적 사물의 존재가 지각됨으로써 성립한다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대상이 존재자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가 ‘esse est percipi’ 원리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자가 정신에 독립적인 물질이 아니라 관념이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제슘(Jessop)은 연장, 무게, 운동과 같은 입자의 성질들이 결국은 관념일 것이기 때문에 입자의 존재가 비물질주의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⁸⁾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념이 지각되는 것이라고 할 때,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를 관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브룩(Brook)이 지적한 바대로, 우리는 이러한 입자가 “어떤 의미에서 관념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¹⁹⁾

버클리는 유한한 정신에게 지각되고 있지 않은 대상의 존재를 ‘esse est

16) Brook(1973), p.100.

17) Winkler(1989), p.263.

18) Brook(1973), p.99에서 재인용.

19) Brook(1973), p.100.

percipi'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확보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지각되지 않는 사물이 존재하기를 멈춘다는 것, 그래서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내가 보고 있던 물리적 사물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눈을 떴을 때 새로이 창조된다는 것은, 물리적 사물이 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상식적 믿음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상징하지 않고 존재를 지각됨으로 규정하면서도 물리적 사물의 존재를 간헐적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존재로서 확보하려는 버클리의 시도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복잡한 해석적인 문제를 남겨주었다.

그런데 『원리론』 3절과 48절 등에서 다뤄지고 있는 지각되지 않는 대상의 문제들은 모두 우리의 감각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들, 그것도 한 번 이상 이미 지각된 적이 있었던 대상들에 대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대상들이 부재 중일 때에도 존재한다고 말해질 수 있는 만큼이나 입자가 그 존재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나는 지각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현상론적 해석을 따르면, 입자를 지각되지 않는 대상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⁰⁾ 원클러가 정리한 현상론적 해석에 따르면, “아무도 지각하

20) 지각되지 않는 대상의 문제를 버클리 체계 내에서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원클러는 하나를 지각론적 해석, 다른 하나를 현상론적 해석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방식 각각을 지지하는 텍스트들은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클리가 실제로 어떤 해석을 지지했느냐보다는 각각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철학적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각각의 해석을 버클리 체계 전체와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의 논의에서 지각론적 해석과 현상론적 해석은 어느 쪽이 더 우월한 해석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려울 만큼 각각 장단점을 고루 지니고 있다. (McCracken(2008), pp.23-44. Winkler(1989), pp.204-37. Pitcher(1977), pp.163-79 참조.) 나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한 해석이라는 전제 하에,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가 실재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적절한 대답을 내리기 위한 방도가 버클리 체계 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어떤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비물질주의적 입자론과 더 잘 맞아들어가는지를 논하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겠다. 그러나 한 익명의 심사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를 관념론이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지각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현상론적 해석에 있다면, 중국에는 현상론적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현상론적 해석의 타당성에 관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에 대한 나의 해석이 미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

지 않는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주의 기울인다면 우리가 가지게 될 지각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²¹⁾ 즉, 현상론적 해석은 지각되지 않는 대상이 실제로 지칭하고 있는 존재자보다는 그것에 관한 진술들에 주목함으로써, 유한한 정신에게 지금 떠오르는 관념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해준다. 즉, 내 방에 가면 침대가 지각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침대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각된 적이 없는 입자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황, 예를 들어, 지금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현미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입자가 지각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비록 한 번도 입자를 지각한 적이 없더라도, 만일 자연 법칙과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서 지각 가능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특정 조건에 놓이면 입자가 지각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자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현상론적 해석은 우리가 파악한 이 세계에 대한 정보들만 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지각 내용들, 그리고 이 세계의 자연 법칙과 잘 조화되는 입자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²²⁾ 비록 현상론적 해석의 해석적 우위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고, 이 해석이 여러 문제점들을 갖

나 현상론적 해석의 타당성 문제는 한층 광범위하고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면에서 더 충실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겠다.

21) Winkler(1989), p.206.

22) 지각되지 않는 대상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현상론적 관점은 창조에 관한 하일라스와 필로누스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세 대화』 251-53에서 하일라스는 성경 킷머리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버클리의 대변자인 필로누스의 견해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수많은 자연물들이 먼저 창조되었는데,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배제한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지각되지 않고서도 그러한 자연물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필로누스의 답변에 따르면, “내가 마침 창조의 순간에 있었다면, 그 신성한 역사가에 의해서 서술된 순서대로 사물들이 산출되는 것을, 즉,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버클리는 신이 물리적 사물들에 대한 앎을 영원히 갖는 것과는 별개로, 물리적 사물들은 유한한 정신들과 관련해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절하게 이야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는 유한한 정신들의 현실적 지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명령, 즉, 적당한 환경 하에서 유한한 정신으로 하여금 특정한 관념을 야기할 신의 적절한 의지에 의존한다.

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클리 자신이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입자의 존재가 현상론적 해석으로 잘 설명된다면 버클리 체계 내에서 입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IV. 버클리에서 자연 법칙 개념과 자연 과학의 범위

지금까지는 버클리 관념론의 핵심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자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버클리가 실제로 입자론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입자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연 과학에 대한 버클리의 입장이 입자의 존재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버클리의 자연 법칙 개념과 자연 법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나는 버클리가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텍스트적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버클리에 따르면, 자연 법칙은 물리적 사물들 사이의 인과적 필연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의 정신 안에 감각 관념들을 질서정연하게 산출하는 방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 자연 법칙은 신이 물리 세계를 산출할 때 따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자연 법칙(Laws of Nature)이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정신이 우리 안에 감각 관념들을 야기할 때 따르는 고정된 규칙(set rules) 또는 확립된 방법(established methods)이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며, 경험은 이러저러한 관념들이 사물의 통상적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관념들에 동반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원리론』 30절). 버클리의 인과론에 따르면 감각 관념에는 인과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감각 관념은 후속될 관념을 필연적으로 함축할 수 없다. 이 점만 놓고 본다면 물리 세계를 이루는 관념들이 앞으로든 지금과 같은 방식에 따라 규칙적으로 발생하리라는 점을 정당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실

제로 관념의 인과성을 부정한 흄(Hume)은 관념들 사이에서 관찰된 규칙성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사건 혹은 관찰되지 않은 사건을 추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²³⁾ 그러나 버클리 형이상학에서 자연 법칙은 이 세계를 창조할 당시에 신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관념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확립한 것이므로 자연 법칙이 신이 가지는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자연 법칙의 본성을 신의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된 자연 법칙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 법칙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에게 관찰된 영역 너머의 물리 세계에까지 정당하게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버클리에 따르면 신이 자연 법칙에 따라 물리 세계를 운영하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지혜로운 목적 때문이다.²⁴⁾ 그런데 신이 이러한 지혜로운 목적 하에서 자연 법칙을 확립했다는 사실은 자연 법칙의 본성으로 항상성(uniformity)과 보편성(universality)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감각 관념의 산출에 있어서 자연 법칙이 시공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신의 지혜로운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리라는 점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신이 따르는 자연 법칙의 항상성은 지각되지 않는 물리적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참을 최소한으로 확보해주기 때문에 지각되고 있지 않은 영역에까지 존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자연 법칙이 물리 세계의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만물에 보편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존재자를 지각된 것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지각되는 영역 내의 데이터만으로 자연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자연 법칙의 본성인 보편성과 항상성에 의해, 지각되는 영역 너머의 세계에까지 존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이제 버클리가 자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영역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텍스트적 증거를 보자.

23) Hume, *Enquiry*, §4 참조.

24) 『원리론』 31, 62, 65절 참조.

우리가 제기한 견해들이 철학과 수학에서의 몇몇 건전한 진리들과 모순된다는 반박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지구의 운동은 요즘 천문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가장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들에 근거하는 진리이다. 그러나 전술한 원리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운동은 단지 관념일 뿐이므로, 그것이 지각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귀결되는데, 지구의 운동은 감각에 의해 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일 그 [지구의 운동에 관한] 원리가 올바로 이해된다면, 우리가 전제해왔던 원리들과 일치한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가 운동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만일 우리가 이리저리한 환경에 놓인다면, 그리고 지구와 태양으로부터 이리저리한 위치와 거리에 놓인다면, 우리는 지구의 행성들의 무리 가운데서 운동하는 것과 모든 면에서 그 행성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보이는 것을 지각할 것인데,** 천문학자들이 관찰한 것으로부터 이것들을 포함시킬 이유를 갖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불신할 이유가 없는, 자연의 확립된 규칙을 통하여, 현상들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된 것이다.** (『원리론』 58절, 강조는 필자)

여기서 버클리는 유한한 정신이 직접적인 지각에 기대지 않고도, 관찰 가능한 현상들 그리고 자연 법칙으로부터 한 번도 지각된 적이 없는 지구의 운동을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구가 운동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리저리한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지구의 운동을 지각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자연 법칙은 보편적으로 만물에 적용되며, 신이 기적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 한에서 항상적으로 운용되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아직 지각되지 않은 현상들을 타당하게 추론해낼 수 있다. 단, 이렇게 추론된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현상들은 ‘우리가 이리저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이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관념을 야기할 것이다’라는 형태로 표현되면서, 원리적으로 지각이 불가능한 물질적 실체나, 힘 또는 인력과 같은 임의로 상정된 도구주의적 존재자들과 구별되며 지각의 장막 안으로 들어온다. 나는 이 구절이 버클리가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본다. 우리가 발견한 자연 법칙과 현상들로부터 지구의 운동을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듯이, 입자의 존재와 성질들이 올바른 자

연 법칙과 현상들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다면, 관념론적 형이상학이 입자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버클리가 보편적이고 항상적인 자연 법칙에 의거해서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대상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모습에 대한 신학적 원리를 추가적으로 결합하면 버클리가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더욱 일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세 대화』 211에서 필로누스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모습이 유한한 정신에게 미쳐 다 파악되지 못할 만큼 매우 풍요롭고 다양하면서도, 모든 사물들은 서로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한다. “감각도 상상력도, 눈부시게 빛나는 세간들로 온통 채워진 그 무한한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열심히 궁구하는 정신이 아무리 최대한 인간힘을 쓴다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여분이 늘 파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 웅장한 자연 세계를 이루는 물리적 사물들은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어떤 비밀스러운 작동 방식과 신적인 기술과 힘에 의해 상호 의존과 상호 교섭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버클리 시기에 이루어진 경험주의적 과학의 급격한 발전은 물리 세계의 복잡성에 대한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었을 것이다. 특히 버클리는 “현미경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 간다”는 점에 주목했다.²⁵⁾ 물리 세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더 나은 관측 도구들을 발명하여 새로운 지각 경험을 얻으려는 과학 활동들을 고무했을 것이며, 새로운 지각 경험들이 축적되더라도 우리에게 미쳐 식별되지 않은 것들이 항상 ‘여분’으로 남아 있다고 믿게끔 했을 것이다. 이로부터, 더 정교한 현미경이 발견된다면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입자들이 지각되리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뒤따라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버클리는 거시세계에서 기계론적 법칙에 따라 관념이 산출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원리론』 60-66절)
- (2) 신은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자연법칙에 따라 관념을 산출한다.

25) 『신시각론』 85절.

(3) 신이 창조한 물리 세계는 무한히 복잡하므로 유한한 정신에게 헤아릴 수 없는 여분이 항상 남아 있다.

이로부터 버클리는 우리에게 미처 파악되지 않은 여분으로 남아있는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미시 세계가 유한한 정신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재하며, 우리가 만일 미시 세계를 지각한다면, 미시 세계에 대한 관념도 거시 세계와 마찬가지로 기계론적 법칙에 따라 산출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버클리가 이 물리 세계는 보이지 않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자들의 크기, 형태, 운동, 배열 등이 우리에게 지각되고 있는 현상들과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일관적인 해석이다.²⁶⁾

“일반적인 규칙들은 현존하는 것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 너머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시간상 그리고 공간상 아주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그럴듯한 추측을 하게 해주며, 다가올 일들을 예측하게” 해준다.²⁷⁾ 그러므로 이제 관념론 체계 내에서 자연 과학의 범위는, 우리가 지각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지각 가능한 영역에까지 정당하게 확장될 수 있다. 우리는 버클리의 비물질주의가 ‘200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것이다’라든가, ‘방사성동위원소 측정법을 통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와 같은 과학적 진술을,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인 진술로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통해 추론한 사건의 진위는 직접 지각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이 운용하는 자연의 질서를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

26) 관념으로서의 입자는 일차 성질 뿐 아니라 이차 성질들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원리론』 10절에 따르면 이차 성질이 결여된 일차 성질의 관념은 사유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버클리는 그의 [관념론적] 입자들이 색을 결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가버의 생각에 동의한다. 에서튼은 “만일 입자들이 원리적으로 지각 가능하다면,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일차 성질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차 성질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Garber(1982), p.193, 주석 17. Atherton(1991), p.54.)

27) 『원리론』 105절.

문이다.

우리의 시야 내의 현상들을 부지런히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발견할 것이고, 그 법칙들로부터 다른 현상들을 연역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모든 연역들은 자연의 창조주가 언제나 항상적으로 작용하며, 또한 우리가 원리들이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규칙들을 변함없이 준수한다는 가정에 의존해 있는데, 그 원리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리론』 107절, 강조는 필자)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현상들을 자연 법칙들로부터 연역하는 것은 증명의 반열에 오를 수는 없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신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운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듯이, 신이 관념을 야기할 때 따르는 자연 법칙 또한 완전히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성의 운동에 대한 이론들이 지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번 수정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입자론도 입자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의 발견 없이도 계속해서 수정되며 논의될 수 있다.

V. 입자에 대한 도구주의 검토

마지막으로, 버클리가 뉴턴 역학에 대해 도구주의적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입자론도 도구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 고려해보자. 도구주의란, 어떤 과학 이론에 포함되는 이론적 구성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학 이론을 물리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버클리는 뉴턴 역학의 주요 개념인 힘(force)이 지각 불가능하므로 실재하지는 않지만, 감각 가능한 결과들을 추론하거나 계산하는 데 유용하므로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²⁸⁾ 이 때 힘은 ‘수학적 가설(mathematical hypothesis)’로 취

28) “힘, 중력, 인력 및 이와 같은 종류의 용어들은 운동에 관하여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에 관하여 추론하고 계산하는 데 유용하지만, 운동 그 자체의 단순한 본성을 이해하거나

급된다. 포퍼(Popper)와 워녹(Warnock)은 버클리리 입자를 힘과 같은 도구주의적 존재자로 다루고 있다고 본다.²⁹⁾ 입자를 힘과 같은 도구주의적 존재자로 취급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입자를 지각할 수 없는 이론적 존재자로 상정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입자에 대한 관념이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입자가 힘을 지각할 수 없다고 말할 때와 동일한 의미에서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우리는 지각 가능성 개념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없다고 해서 원리상 지각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힘을 도구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힘은 원리상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만일 입자가 원리상으로 지각 가능하다면 입자를 힘과 같이 도구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³⁰⁾

그러면 입자를 힘과 달리 원리상으로 지각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할 근거는 무엇인가? 앞선 논의들에서 입자는 원리상으로 지각 가능한 대상으로 가정되었지만, 입자를 도구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

아주 많은 뚜렷한 성질들(distinct qualities)을 가리키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다. 인력의 경우, 뉴턴이 분명하게 소개했듯이, 참된 물리적 성질이 아니라 **수학적 가설(mathematical hypothesis)**일 뿐이다.”(『운동론』 17절, 강조는 필자)

- 29) Popper(1953), p.32. Warnock(1953), pp.212-13. 포퍼는 이에 대해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논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자를 힘, 중력, 인력 등의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입자 또한 힘과 같이 도구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30) 원리상의 지각 가능성은 현실적 지각 가능성보다 그 가능성의 범위가 더 넓다.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반사실적 조건문을 적절히 제시하기 위해서 입자의 지각 가능성이 반드시 현실적 가능성일 필요는 없다.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는 입자를 지각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현재의 자연 법칙 하에서 입자가 지각될 조건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입자가 비록 한 번도 지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입자의 존재를 진술하는 유의미한 반사실적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입자의 지각 가능성이 현실적 가능성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가능성의 수준에만 머물게 되면 버클리리 그러한 입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즉, 입자가 지각 가능하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법칙들과는 다른 법칙들로 이루어진 다른 가능세계에서 지각될 수 있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유는, 입자론에서 물리적 대상들을 구성하는 입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 따라 추론된 존재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입자가 이 세계의 자연 법칙을 통해 연역된, 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 종속된 존재자로 상정되었다면, 그러한 입자는 다른 가능 세계에서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지각 가능할 것이다.

하려면, 왜 입자를 힘과는 다른 대상으로 취급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버클리에게서 지각한다는 것은 관념을 가진다는 것이다.³¹⁾ 그런데 감각을 통해 지각된 관념들은 감각적 성질들과 동일시된다. 그래서 물리적 사물들은 색, 모양, 연장, 냄새, 맛 등 “수없이 많은 감각적 성질들 또는 감각적 성질들이 합성된 것에 불과하다”(『세 대화』 175). 지각한다는 것이 관념을 갖는다는 것이고, 관념을 갖는다는 것이 색, 모양, 소리 등의 감각적 성질들을 갖는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감각적 성질들이 마음 속에 떠오르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지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지각 가능하다면 그것은 감각적 성질들의 결합으로서 마음 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 즉, 원리상 지각 가능한 대상과 원리상 지각 불가능한 대상을 나누는 기준은 감각적 성질들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힘은 그 본질에 따라 원리상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이다. 힘은 어떤 감각적 성질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그래서 우리는 힘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상상은 지각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입자는 감각적인 성질들로 이루어진 대상으로 상정된다. 기계론적인 설명에서 입자의 크기, 모양, 운동 등의 일차 성질들은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현상들과 일정한 상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거니와, 버클리 자신이 후기 저작에서 입자들을 언급할 때 입자들은 감각적 성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³³⁾ 결론적으로, 원리상 지각 가능한 대상과 원리상 지각 불가능한 대상을 나누는 기준은 감각적 성질들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입자는 감각적 성질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정되며 자연 법칙에 따라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관찰되리라고 추론될

31)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지각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오직 상상할 때에도 관념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러한 상상은 지각을 전제한다.”(『철학적 주석』 582) 관념을 감각 관념과 상상 관념으로 엄밀히 구분한다면 지각한다는 것은 감각 관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상이 지각과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상 관념은 이미 지각된 관념들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우리는 어떤 힘도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없으며, 그것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알려지거나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운동론』 10절)

33) 『사이리스』, 162.

수 있는 원리상으로 지각 가능한 존재자이다. 그러므로 입자는 도구주의적으로 다뤄질 이유가 없다. 버클리는 원리상 지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는 존재자에 한해서 도구주의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입자를 도구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은 버클리의 도구주의적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버클리의 ‘수학적 가설’ 개념과도 일관적이지 않다.

VI. 맺는 말

버클리는 자신의 관념론적 형이상학 하에서 물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학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그러므로 버클리의 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과학이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한 세계에 한정된다면 그것은 버클리에겐 큰 약점이 될 것이다. 과학의 예측력과 설명력을 버클리의 형이상학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각된다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대상에까지 존재론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버클리가 그의 초기 저작에서 입자론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등장하는 입자론은 인과적 입자론과 같은 물질주의적 입자론일 뿐이며, 버클리가 물질주의적 입자론을 거부한다고 해서 비물질주의적 입자론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버클리가 거시세계에서 비물질주의적 기계론을 옹호했다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짚어보고, ‘esse est percipi’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자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버클리가 보편적이고 항상적인 자연 법칙으로부터 한 번도 지각되지 않은 현상을 연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절, 그리고 신이 창조한 세계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유한한 정신에게 미처 다 파악되지 못한 것이 항상 여분으로 남아있다는 구절로부터, 버클리가 입자론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버클리 체계와 정합적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첫째, 정신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인과력을 갖지

않고, 둘째, 이미 관찰된 데이터들 그리고 신이 관념들을 야기할 때 따르는 보편적이고 항상적인 자연 법칙으로부터 올바르게 추론되고, 셋째, 우리가 적절한 상황에 놓이면, 입자를 지각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올바르게 확보된다면, 입자는 버클리 관념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들은 그의 초기 저작에서 일관되게 드러난다고 판단된다.

투 고 일: 2015. 07. 21
심사완료일: 2015. 08. 18
게재확정일: 2015. 08. 19

오아론
서울대학교 철학과

참고문헌

버클리 저작의 모든 인용은 Berkeley, George. (1948) *The Works of George Berkeley, Bishop of Cloyne*, ed. by A. A. Luce and T. E. Jessop, London: Thomas Nelson & Sons, 9 vols.에 준거해서 표기하되, *A Treatis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1710) 은 『원리론』으로, *Three Dialogue between Hylas and Philonous*(1713)는 『세 대화』로, *De Motu*(1721)는 『운동론』으로, *An Essay Towards a New Theory of Vision*(1709)는 『신시각론』으로, *Philosophical Commentaries* (1707~1708)은 『철학적 주석』으로, *Siris*(1744)는 『사이리스』로 표기하였다. 『신시각론』의 번역은 이재영, 『새로운 시각 이론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09을 참조하였다.

1차 문헌

- 버클리. (2009). 『새로운 시각 이론에 관한 시론』. 이재영 옮김. 아카넷.
- Berkeley, George (1992). *De Motu and The Analyst: A Modern Edition, with Introductions and Commentary*. ed. and trans. by Douglas M. Jesseph.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erkeley, George (1975). *Philosophical Works including the Works on Vision*. ed. by Michael R. Ayers. The Guernsey Press Co. Ltd.
- Berkeley, George (1901). *The Works of George Berkeley*. Vol 3. ed. by Fraser, Alexander Campbell. Oxford: the Clarendon Press.
- Boyle, Robert (1991). *Selected Philosophical Papers of Robert Boyle*, ed. by Stewart. M. A., Indianapolis: Hackett.
- Descartes, René. (1983). *Principles of Philosophy*, trans. by V. R. Miller and R. P. Miller,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본문에서 『철학의 원리』로 표기)
- Hume, David (1999).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by Tom L. Beauchamp. Oxford University Press. (본문에서 *Enquiry*로 표기)

Locke, John (1975).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by Peter H. Nidditch. Oxford: Clarendon Press. (본문에서 『인간지성론』으로 표기)

2차 문헌

김성환 (2008). 『17세기 자연철학』, 그린비.

Atherton, Margaret (1991). “Corpuscles, Mechanism, and Essentialism in Berkeley and Lock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9 (1), pp. 47-67.

Brook, Richard J (1973). *Berkeley's Philosophy of Science*. The Hague: M. Nijhoff.

Chalmers, Alan (2009). *The Scientist's Atom and the Philosopher's Stone: How Science Succeeded and Philosophy Failed to Gain Knowledge of Atoms*. Vol. 279. Springer.

Dijksterhuis, Eduard Jan (1969). *The Mechanization of the World Pi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owning, Lisa (1995). “*Siris* and the Scope of Berkeley's Instrumentalism”.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3 (2), pp. 279-300.

_____, (2005). “Berkeley's Natural Philosoph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Berkeley*. ed. by K. P. Winkl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0-265.

Garber, Daniel (1982). “Locke, Berkeley, and Corpuscular Scepticism”. *Berkeley: Critical and Interpretive Essays*. ed. by C. Turbayne. Univ of Minnesota Press. pp. 174-194.

- Moked, Gabriel (1986). "Two Central Issues in Bishop Berkeley's 'Corpuscularian Philosophy' in the *SIRIS*." *History of European Ideas* 7.6, 633-641.
- _____, (1988). *Particles and Ideas: Bishop Berkeley's Corpuscularian Philosophy*. Oxford: Clarendon Press.
- Pitcher, G (1977). *Berkeley*. London: Routledge.
- Popper, K. R (1953). "A Note on Berkeley as Precursor of Mach".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4 (13), pp. 26-36.
- Tipton, I. C (1974). *Berkeley: The Philosophy of Immaterialism*. London: Methuen & Co Ltd.
- _____, (1982). "The 'Philosopher by Fire' in Berkeley's *Alciphron*." *Berkeley: Critical and Interpretive Essays*. ed. by C. Turbayne. Univ of Minnesota Press. pp. 159-173.
- Urmson, J. O (1986). "Two Central Issues in Bishop Berkeley's Corpuscularian Philosophy in the *Siris*", *History of European Ideas* 7, pp. 633-641.
- Warnock, G. J. (1953). *Berkeley*. Melbourne: Penguin.
- Wilson, M. D. (1985). "Berkeley and the Essences of the Corpuscularians." *Essays on Berkeley: A Tercentennial Celebration*, pp. 189-190.
- _____, (1999). *Ideas and Mechanism: Essays on Early Modern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nkler, Kenneth P (1989). *Berkeley: An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ABSTRACT

Berkeley's Immaterialistic Corpuscularianism

-The Problem of Yet to Have Been Perceived Objects-

Oh, Aron

In this paper, I argue that Berkeley's immaterialism is compatible with corpuscularianism and in fact, Berkeley adopted an immaterialistic corpuscularian position. I hold this position because I believe that there is textual evidence in his early texts that shows that Berkeley realizes the possible advantages of corpuscles for immaterialistic explanations of natural phenomena. Before presenting my positive thesis, I first consider some commentators' arguments that Berkeley rejects any form of corpuscularianism in virtue of his immaterialism. I disagree with their position because their assessment is based on a specific reading of corpuscularianism. Subsequently, I show that corpuscularianism is fully consistent with Berkeley's immaterialism. I argue that Berkeley's thought of internal mechanisms of the physical things and his 'esse est percipi' principle do not conflict with the existence of yet to have been unperceived corpuscles. And then, I argue that Berkeley must have adopted immaterialistic corpuscularianism given the problem posed by his commitment to the Laws of Nature which are universal and uniform. Lastly, I try to answer a possible objection which would claim that Berkeley is an instrumentalist about corpuscles as well as force.

Keywords: Berkeley, immaterialism, idealism, corpuscularianism, yet to have been perceived objects